

열왕기하 18. 앗수르의 침략을 받은 유다 왕 ‘히스기야’ (왕하 18 장 1-37)

들어가기

본 장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앗수르가 ‘히스기야’ 왕 때에 유다를 침략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본 장은 당시 상황을 두 부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, 첫째는 ‘다윗’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‘히스기야’ 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고, 둘째는 유다를 침략한 앗수르가 ‘히스기야’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어떻게 위협하며 하나님을 모욕했는지 그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.

1. 유다 왕 ‘히스기야’에 대한 서론적 평가 (1-8 절)

1) ‘히스기야’는 25 세에 유다 13 대 왕이 되어 29 년간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. (1-2 절)

- 그의 아버지는 12 대 ‘아하스’ 왕이었고, 어머니는 ‘스가리야’의 딸 ‘아비라’였음.

➤ 참고: ‘아하스’ 왕이 ‘히스기야’를 낳은 나이에 대한 반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?

- 우선 ‘아하스’ 왕은 20 세때 왕이 되어 16 년간 유다를 통치했다고 기록됨. (왕하 16:2)
- 그런데 본문에는 ‘히스기야’가 왕이 된 때를 25 세라고 증언!
- 그렇다면 ‘아하스’가 ‘히스기야’를 낳은 때는 11 세가 된다는 것!! 이것이 가능한가?

- 이에 대한 보수적인 학자들의 3 가지 해석

①. 당시 근동지방의 조혼 풍습으로 보면 큰 문제가 안됨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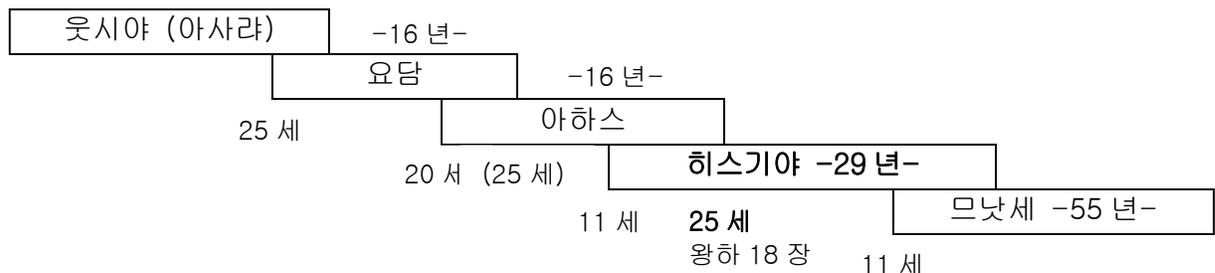
- 셈어학 및 관련 분야 전문지인 (Zeitschrift für Semitistik und verwandte Gebiete, E. 리트만 편, 라이프치히, 1927 년, 5 권, 132 면)
- 사춘기는 평균적으로 12-15 세 남자들에게서 시작, 그런데 근동지역처럼 더운 기후에선 더 일찍 시작되는 경우들도 많음.
- 현시대에도 8-12 세 자녀들을 조혼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유목민들 사이에 행해짐.

②. ‘아하스’가 왕이 된 때의 나이 기록이 오류라는 견해!

-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어 ‘페시타’ 및 일부 그리스어 ‘칠십인역’ 사본들에는 ‘아하스’가 왕이 된 나이를 25 세라고 기록.
- 그렇다면 ‘아하스’는 16 세에 ‘히스기야’를 낳은 것이 됨!

③. ‘아하스’ 왕의 통치 기간 16 년은 아버지와 함께 통치했던 기간은 빠진 것이란 견해!

- 열왕기서, 역대기서의 연대기록은 종종 왕들의 섭정기록이 빠진 경우가 많음!



2) ‘히스기야’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? (3-8 절)

- ①. ‘다윗’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!
 - 참고로 조상 다윗과 같이 행했다고 평가한 유다 왕은 오직 3 명뿐!
-> 4 대 ‘여호사밧’, 13 대 ‘히스기야’, 16 대 ‘요시아’
- ②. 유다의 여러 산당들과 주상, 아세라 목상들을 깨뜨리고, 모세가 만든 놋뿔도 부숨!
 - 곧 유다에 퍼진 우상숭배를 철저히 금지시키고, 성전중심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!
 - 특히 당시 유다 백성들 중에는 출애굽 때 불뿔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만들었던 놋뿔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!!
- 학자들은 여부스 족속의 제사장인 ‘사독’이 자기 족속을 위해 전통적/기념적/상징적 성물로 제작한 것이 숭배의 시초가 되었을 것이라 추측.
- 또한 당시 시대적 상황(‘아하스’의 앗수르 추종정책)이 이런 현상을 더 부추겼을 것!)
- 그런데 ‘히스기야’는 이 놋뿔을 ‘느후스단’, 곧 ‘놋 조각’이라 부르며 깨뜨려버림!
- ③. ‘히스기야’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했고,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않음!
 - 특별히 5 절에서 이전의 어느 유다 왕들도 그와 같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!!
 - 그 결과!! **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고!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도록 축복하심!!**
- ④. ‘히스기야’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앗수르를 버림!
- ⑤. ‘히스기야’는 블레셋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의 견고한 성들을 차지함!
 - 특별히 당시 ‘히스기야’가 쳐서 차지한 사방의 견고한 성들은 아버지 시대에 빼앗겼던 땅들을 회복한 것! (역대하 28:18)
 - 참고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함! (사 14:28-31)

2. 히스기야 왕 4년에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 당함! (9-12 절)

- 1)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?
 - 19 대 ‘호세아’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, 그는 애굽을 의지하여 앗수르에 대항하고자 함!
 - 그러나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, 전쟁에서 패한 후 포로로 잡혀감!
 - 앗수르 왕 ‘살만에셀’은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했다가 ‘히스기야’ 왕 6년때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킴!
 - 이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앗수르로 잡아갔고, 앗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이주시킴!
- 2) 그럼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근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했나?
 - 12 절, ‘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,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!’
- 3) 그럼 하나님은 왜 저자로 하여금 이 사실을 지금 이 순간 다시금 기록하게 하셨을까?
 -

3.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가 드디어 유다도 침략함! (13-37 절)

1) ‘히스기야’ 왕 14 년에 앗수르의 왕 ‘산헤립’은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. (13-17 절)

①. 우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지 8 년이 지난 후 유다를 침략했다는 것!

- 아마도 지난 8 년은 ‘히스기야’가 어렸기에, 아버지 ‘아하스’ 왕이 섭정을 하면서 앗수르의 비위를 잘 맞추고 섬겼을 것!
- 그러나 ‘히스기야’의 통치가 본격화 되면서 반, 앗수르 정책이 펼치기게 되자 곧바로 침략해 왔다는 것!

②. 이때 ‘히스기야’는 사신을 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, 화친을 청함!

- 그로 인해 앗수르는 은 300 달란트, 금 30 달란트를 화친의 조건으로 요구함!
- ‘히스기야’는 왕궁과 성전 곳간의 은, 금들을 모아서 바침!

• 참고로 이 같은 ‘히스기야’의 행동에 대한 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.

a. 이런 결정은 ‘히스기야’의 결정이라기보단 ‘아하스’의 결정이었을 것!

-> b/s ‘히스기야’에 대한 앞 절의 평가를 볼 때에…,

b. 앞 절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‘히스기야’의 결정이었을 것!

-> b/s 당시 상황이 ‘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당하던’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!

③. 그럼 ‘히스기야’의 예물을 받은 앗수르 왕 ‘산헤립’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?

- ‘다르단’과 ‘랍사리스’, ‘랍사게’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공격해 항복을 받도록 지시함!!
- 참고로 이들 이름은 앗수르 정부의 주요 직책을 의미한 것!
- ‘다르단’=’군대지도자’, ‘랍사리스’= ‘환관장(내시들의 대표)’, ‘랍사게’=’군대장관’

• 특별히 당시 이들이 이끄는 앗수르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 근처 **‘윗못 수도 곁 곧, 세탁자의 발에 있는 큰 길’**까지 진격해 왔음!!

- 이곳은 지금의 ‘아인 쉰티 미리암’이라 불리는 ‘처녀 샘’이 있는 곳.

- 이곳에서 시작되는 샘물은 예루살렘 성내의 ‘실로암 못’까지 흐르며 예루살렘 사람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되었음!

- 참고로 ‘이사야’ 선지자는 이곳에서 일찍이 ‘아하스’ 왕을 만나 앗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미리 예언함!! (사 7:3)

- ‘히스기야’ 왕은 이번 위기를 잘 넘긴 뒤, 이곳 ‘처녀 샘’에서부터 ‘실로암’까지 지하 수도를 건설해 예루살렘을 방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듦!! (왕하 20:20)

• 아무튼 ‘히스기야’가 처한 상황은 예루살렘 성의 식수까지 위협당하는 심각한 상태!

• 그런데 이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도 ‘히스기야’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다는 것!!

=> 이것은 19 절 이하부터 나오는 ‘랍사게’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!

2) 앗수르의 군대장관 ‘랍사게’는 ‘히스기야’를 부르며,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(18-37 절)

- 우선 ‘히스기야’를 대신해 왕궁의 책임자인 ‘엘리아김’, 서기관 ‘솎나’, 사관 ‘요아’가 나옴!

3) 그럼 당시 ‘랍사게’가 앗수르 왕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협하며 한 말은 무엇이었나?

- ①. 너희 유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나?
 - 너희가 싸울 힘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말뿐이라 조롱!
 - 혹시 애굽을 의지해 보겠다고 생각한 들 저들은 상한 갈대임! 때문에 그 갈대에 오히려 찢릴 것이라 조롱!.
- ②. 너희 왕이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하지만, 과연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?
 - 혹시라도 말을 타고 맞설 자가 있다면, 말 2천마리를 자신이 줄 것이라 조롱! 얻은 것이 무엇인가?
- ③. 너희가 의지한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도록 해서 너희를 치라고 한 것!!

- 이 같은 말은 당시 대신들은 물론이고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말이었음!
- 그로 인해서 대신들은 부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말해달라고 요청함!
 - 참고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‘랍사게’는 원래 유대인이었으나, 배교한 후 앗수르에 충성한 인물이었다고 전해짐!
 - 따라서 그는 유창한 히브리어로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‘하나님의 뜻’을 근거로 앗수르에 항복하라고 선포했다는 것!

4) ‘랍사게’는 유대 대신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큰 소리로,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더 심한 말로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었습니다.

- ①. 당시 예루살렘 성이 처한 상황을 최대한 극대와 시켜가며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!
 - 하나님께서 ‘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’
- ②. ‘히스기야’에게 속지 말고, 앗수르 왕의 말을 들을 것! Why? 그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음!!
 - 그럼 당시 ‘히스기야’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?
 - 여호와를 의뢰하라!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!
 - 그럼 앗수르 왕이 전한 말은?
 - 항복하고 나오면 앗수르 땅에서 왕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, 우물 물을 마실 것!
 - 지금껏 앗수르의 손에서 건짐 받은 땅이 없음을 보고, 깨달을 것!
 - 더 이상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목숨을 건질 것!!

4) 이 같은 ‘랍사게’의 모욕적인 말들은 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,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.

- 이는 ‘히스기야’ 왕이 듣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했기 때문!!

4.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달거나 결심한 내용들이 있다면?